

# 품목 늘린 아열대 작물 '오매향'...브랜드 힘 키운다

### 곡성 체리·담양 백향과 합류...매출 목표 3억8500만원 농협 전남본부, 추석 맞아 수도권·온라인 등 판로 넓혀

전남지역 아열대 작물 브랜드 '오매향'에 곡성 체리와 담양 백향과가 새롭게 합류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공략과 라이브커머스(생방송 판매) 등 판로를 다각화해 올해 추석 '오매향'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협 전남본부 전남광역연합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오매향' 매출 목표는 3억8500만원으로, 전년 매출(1억6900만원)보다 127.8%(2억1600만원) 높게 잡았다.

'오매향'은 농협 전남본부가 작물 선택부터 재배, 가공,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 포함됐던 애플망고와 바나나, 비파 외에 올해는 체리와 백향과가 새롭게 들어갔다.

올해 '오매향'을 이름에 달고 작물을 내놓는 농가는 모두 24가구이다. 이들은 총 12.7ha 규모 농장에서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 농사를 짓는다.

해남 계곡농협 소속 농가 2곳이 1.2ha 규모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고, 완도농협 조합원 농가 7가

는 2ha 규모 비파 재배를 한다.

서영광농협과 정남진장흥농협, 보성 벌교농협 등 4개 농가가 참여하는 애플망고 농사는 0.9ha 규모로 이어진다.

올해 8.3ha 규모 체리 농사를 짓는 곡성농협 조합원 농가 10곳은 '오매향' 브랜드 합류 재배를 마쳤다.

담양 대전농협에서도 0.3ha 규모 백향과 재배를 통해 오매향에 이름을 올린다.

신규 작물인 체리와 백향과는 올해 각각 3000만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다. 올해 오매향 체리는 1t, 백향과는 0.5t 규모로 출하할 예정이다.

기존 작물들도 전년보다 매출 목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잡았다.

애플망고는 전년보다 98.4% 증가한 2억5000만

원 판매고를 올릴 계획이다. 바나나 매출은 전년보다 66.7% 증가한 2500만원을 이를 방침이다. 비파 매출 목표는 지난해 28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78.5%(2200만원) 늘렸다.

올해 '오매향'은 온라인 등으로 판로를 다양화해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과 최대한 접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곡성농협이 '오매향' 브랜드로 처음 선보이는 체리 품목은 '라이브커머스'(생방송 판매)로 만날 수 있다.

곡성농협은 방송 판매 기획부터 제작, 송출 등 라이브커머스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 '팔도라이브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애플망고와 백향과가 주력 상품인 서진도농협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접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서진도농협은 올해 농협경제지주 '온라인지역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합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 중순까지 농협 전남본부는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농협유통 판매장 3곳을 찾아 애플망고 구매 고객에게 전남 쌀 500g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전남산 제철 우수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 애플망고는 추석 명절에 맞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며, 바나나는 전남지역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공급망을 넓힐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다짐.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서홍 본부장(가운데)과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이창기 본부장, 21개 사군 지부장 등 50여 명이 지난 26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회의'를 열고 관람객 유치와 입장권 판매에 힘쓰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이다. <전남농협 제공>

## 전남 쌀 소비운동에 농협은행 기업고객 대주·KC그룹 동참

7000만원 상당 구매·공급협약

농협은행 전남영업부는 기업고객인 대주·KC그룹(창업주 박주봉)이 전남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주·KC그룹의 계열사 ㈜케이씨는 최근 농협은행 전남영업부, 장흥 용두농협과 전남 쌀 7000만원 상당 구매·공급협약을 맺었다.

대주·KC그룹은 영암군 대불산단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케이씨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주봉 대주·KC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백찬인 장흥 용두농협 조합장, 오정운 농협은행 전남영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구매한 전남 쌀은 추석을 앞두고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쓰일 계획이다.

오정운 부장은 "쌀 재고 소진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을 포함한 여러 소비자가 지역 쌀 착한 소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구매·공급협약식'. 왼쪽부터 박주봉 대주·KC그룹 부사장, 백찬인 용두농협 조합장, 오정운 농협은행 전남영업부장. <전남농협 제공>

## 올 첫 수확 전남 배, 대만·싱가포르 등 수출

영암·순천 조생종 64t

올해 처음 수확한 전남 배가 수출길에 올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조생종 배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기 위한 상차식을 잇달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영암 신북농협은 최근 대만에 조생종 원황 배 44t을 수출했다. 올해 목표로 세운 배 수출량은 1200t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신북농협의 배 수출물량은 전년보다 47% 증가한 241t으로 집계됐다. 신북농협은

지난해 수출 배 선과장을 신축하기도 했다.

순천 조합공동사업법인인 이날 말까지 싱가포르(페어프라이즈마켓), 홍콩(완차이 전통시장), 베트남(콤포마트) 등 해외 유통업체를 통해 24t을 수출한다. 지난해 말까지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140t을 수출해왔다. 연내 목표 수출량은 1000t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올해 배 생산량은 평년보다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확대에 배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진도산 견고추' 직거래장터서 성황리 판매

1800kg 당일 오전 모두 소진

광주농협과 진도농협이 도농 상생을 위한 '견고추 직거래장터'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본점에서 최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장터에는 진도산 견고추가 선보여졌다. 광주농협 소속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이날 판매 자원봉사에 나서 견고추 1800kg을 당일 오전 모두 판매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과 주영규 농협 진도군지부장 등 임직원 20여 명도 참석했다.

한진섭 조합장은 "이번 직거래 장터는 도시와 농촌의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생산자 농협은 열심히 키운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 농협은 소비자에게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살 이 기회를 앞으로도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축협, 3년 만에 원로 조합원 초청 행사

광주축산농협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원로 조합원 친교 행사'를 3년 만에 다시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한 행사장에서 열린 '2022년 원로 조합원 친교의 시간'에는 170여 명의 원로조합원이 초청됐다.

이 행사는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과 헌신으로 성장의 발판을 이끌어준 원로 조합원들의 노고를 위

로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웃음'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와 국악인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오늘의 광주축산농협 있기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지지해 준 원로 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원로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